

# 광주세계수영대회 전국 붐 조성 박차

## 대구시청 앞 '수리·달이' 마스코트 제막식 "성공개최 협력" 서울역·용산역·공항 등에도 대형 조형물...홍보활동 활발

광주시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전국 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2일 대구시청 앞 광장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세계수영대회 마스코트인 수리·달이 조형물 제막식을 가졌다. 대구는 영남의 거점도시이자 광주와 달빛동맹을 맺고 있는 도시다. 제막식에는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 대구시수영연맹 남정달 회장 등 대구시 각계 인사와 광주시의회 김익주 행정자

치위원장이 함께 참석해 수영대회 성공을 기원했다. 이 시장과 권 시장은 제막식에서 광주수영대회 성공 개최와 광주-대구 상생발전을 위해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이번 제막식은 지난달 26일 권 시장이 광주시청을 방문해 공무원 특강과 228번 시내버스 명명식을 가진데 대한 답방형식으로, 광주수영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달빛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차

원에서 이뤄졌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달에는 KTX 용산역 광장과 청와대 사랑채 광장에서 각각 마스코트 수리·달이 조형물 제막식을 갖는 등 수영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전국 붐 조성에 나서고 있다. 지난 1월에도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2월에는 KTX 서울역, KTX 광주송정역, 유스퀘어 광주버스터미널 등에 수리·달이 대형 조형물 설치를 마쳤고, 향후 유

동 인구가 많은 전국 12개소에도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제막식에 이어 경북대에서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달빛동맹,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의 길'이라는 주제로 70분 간 특강을 했다. 이 시장은 특강에서 "수도권 위주의 발전전략은 산업사회 때는 유효했지만 글로벌 경쟁시대인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면서 "각 도시와

지역들이 자기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고 서로 연대할 때 국가경쟁력이 제고된다"고 밝혔다. 특히 "상생-균형발전-동반성장을 지향하는 달빛동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원동력으로, 영남의 거점도시 대구와 호남의 거점도시 광주 간의 소통과 교류는 지역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통해 국민대통합에도 큰 몫을 해낼 것

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대구 2·28과 광주 5·18 정신의 활발한 교감을 통해 더욱 역사 연대를 강화하고, 달빛내륙축도 건설과 경전선 전구간 전철화 등 동서간 SOC 확충과 경제, 문화, 체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해 광주와 대구의 동반성장은 물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디이기자

## 수영대회 조직위, 현장 운영체제로 전환

### 준비실태 집중 점검...자원봉사자 3천126명도 선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를 해온 조직위원회가 본격적인 현장체제로 전환한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2일 오후 조직위 회의실에서 조영택 사무총장 주재로 대회 현장운영계획 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실천 현장체제로 전환에 따른 준비사항들을 점검했다. 대회를 70여일 앞두고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대회시설, 경기운영, 선수촌 운영, 수송, 식음료, 의료, 안전 등 각 분야의 현장 운영계획을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부족한 분야의 개선점을 마련했다. 조직위는 이번 보고회를 토대로 5월 중에 종합상황실을 조기 운영해 대회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및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대회 기간 폭염·폭우에 대비한 관람객과 선수단 안전에 대한 준비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감염병, 식음료 안전에 대한 대책을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 등 정부 기관과 공조하는 부분도 점검했다. /김디이기자

이날부터 조직위 부서 중 선수촌 관리와 운영을 책임진 선수촌부가 선수촌으로 이전해 근무한다. 또 방송 운영을 담당하는 미디어부도 5월 하순께 남부대에 설치된 국제방송센터(IBC)로 이전한다. 조직위는 이번 달부터 시·구·단체 등의 현장 지원 요원 700여명을 확충하고 선수 엔트리가 마감되는 6월12일까지 모든 업무를 현장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조직위는 이날 수영대회 자원봉사자 3천126명을 최종 확정했다. 자원봉사자 중에는 영어 678명, 중국어 48명, 일본어 35명, 프랑스어 20명, 그밖에 언어 51명 등 총 832명의 외국어 통역 자원봉사자가 선발됐다. 또 해외 거주 외국인 25명과 주한 외국인 46명도 포함했으며 여수해양엑스포공원에서 열리는 오픈워터 경기 자원봉사자에 여수시민 180명도 선발해 대회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다. 선발된 자원봉사자들은 오는 27일 공식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거쳐 본격적인 자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김디이기자



청년들과 대화하는 김지사 김영록 전남지사가 2일 오후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목포시 무안동 오거리문화센터에서 열린 청년 타운홀미팅 '100인 청년에게 듣는다'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해남군, 농민수당 전국 최초로 내달 지급

### 함평은 8월...광양·화순도 복지부 협의 마무리 단계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오는 6월 주고, 함평군도 오는 8월께 농민수당 지급에 나선다. 같은 취지의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 중인 광양시·화순군도 보건복지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올해 안에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시행 협의 신청을 한 전남도도 내년에 농민수당 지급을 하기로 하는 등

전남 도내 지자체들의 농어민수당 도입이 본격화하고 있다. 2일 전남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내 시군 중 해남군이 가장 먼저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와 7개월을 끌어온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는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친데 따른 것이다. 오는 10일 까지 농민수당 지급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와 사는 사람으로 농업경영체로서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는 농업인이다. 지역 상품권인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연간 60만원(반기별 30만원)을 균등 지원한다. 농민수당 지급은 상반기 6월, 하반기는 8-9월 중 한다. 함평군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마무리돼 오는 8월께 농민수당 60만원을 지급한다. /임재만기자

지역 상품권으로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데, 올해는 하반기만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과 기준은 해남군과 같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하는 화순군과 광양시도 협의를 마지면 조만간 농민수당 지급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조례 제정 등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르면 올해 안에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남도도 자체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신청했으며,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농민수당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본소득제 지원 제도 도입 지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재만기자

## 저출산·고령화 대응 도시재생 비전 모색

### 전남도, 오늘 농촌경제연구 토론회

전남도는 3일 나주 소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전남 도시재생 활성화 토론회'를 열어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미래 비전을 모색한다. '전남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방향'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전남도와 나주시, (사)한국거버넌스학회가 공동 주최한다. 정부와 학계, 연구원, 공무원, 공기업, 도민 등이 참석해 학술·실무적 토론회를 한다. 김익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

획단장은 기초발제를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주거·상업·복지·여가·문화시설 등을 결합한 거점중심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입, 도서관·돌봄센터·주차장·광장·경로당을 비롯한 생활SOC 공급 확대 등 포용적 도시재생정책을 발표한다. 구자훈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인구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기존 중소도시의 환경 개선과 특성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지방정부의 도시재생정책 과제 등 공무원 역량 도시재생 전남조직 강화, 도시재생대학의 맞춤형 교육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재정기자

## 전남 매력 발굴 '디지털사진 공모전'

전남도는 2일 "이날부터 11월14일까지 전남의 숨은 매력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2019 전남 디지털사진'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남도 디지털사진 공모전은 전남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친환경 농수산업, 각종 특산물 등을 소재로 한 디지털사진을 대상으로 한다.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인당 5점 이내로 출품이 가능하고 전

남도와 인터넷방송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원본파일과 함께 이메일(kimeunseong@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전남도는 11월께 심사를 거쳐 최우수작 1점에 50만원 등 총 23점의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남지사 상장과 함께 은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

은 전남도 인터넷방송 누리집(www.jntv.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병욱 전남도 대변인은 "에코 생태환경 디지털사진 공모전이었던 이름을 디지털사진 공모전으로 변경한 뒤 처음 개최하는 공모전인 만큼 좀 더 참신한 작품이 많이 접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 (5월 12일) 오전 10시 봉축법요식

# 마음 愛 자비를! 세상 愛 평화를!

**▶ 제1부 봉축법요식**

♣ 5월12일 일요일 오전10시 길상사 [사회:백승현]

- 명중(5회): 수달마 스님
- 육법공양: 문수지회장님, 나레이션 김경 외16명(베트남 불자 포함)
- 축가: 길상사목련합창단, 송광실버합창단
- 삼귀의례: 사부대중
- 찬탄경문: 김 경
- 헌화: 각 신도회 회장 및 내빈

♣ 장학금 수여식(길상사 108장학회)

♣ 송광지역아동센터 명그랑저금통 전달식

♣ 북한중, 고등학생 장학금 전달 심공보살 기부

♣ 봉축법요식

- 봉축법어 -- 도제스님 (길상사 주지)
- 축사 -- 김동철(국회의원), 김상호(광산구청장), 백남용 (길상사 신도회장)
- ※축사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회향법원문 -- 사미타스님
- 사홍서원 -- 사부대중

♣ 관욕 ---- 사부대중 전체

♣ 공양시간 : 관욕후 11시30분부터

- 공양장소: 길상사 공양간, 길상사 법당, 고월당카페, 아시아밥을 2층, 아시아밥을 3층 외국인센터



도제스님

**▶ 제 2 부 음악회(길상사 고월당 앞마당, 1시~3시까지)**

- 포크가수 양은주
- 화이트밴드
- 지역 아동 센터 공연, 이주 문화 예술단, 부채춤, 장구, 풍물 신동 노래, 스킨리자 장구 공연, 베트남 노래 공연, 길상사 신도 노래자랑
- 북한통일드림예술단 공연
- ※ 노래자랑 상품 준비되었습니다.

**▶ 연등접수 받습니다 / 가족등, 영가등, 일일등**

**▶ 제 3 부 음악회**

- ♣ 저녁공양: 저녁 5시
- ♣ 음악회
- 꿈앤관(단장): 김도연 기타 리스트, 사프렌: 자매 기타 리스트, 권혁찬: 세계 민속 악기 연주, 이승이: 트로트 가수
- ♣ 제등 행렬: 저녁 8시 30분

**길 상 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로 5번길 7 | 문의 : 062-955-4407